

## 종이 소재(paper yarn) 제품 (2)

원래 한지가 일본의 화지보다도 그 품질이 좋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것이다. 당시 중국에 드나들던 조선의 사신이 중국으로 들고 가는 선물 제1호가 한지였고, 또한 중국의 사신이 우리나라에 오면 의례히 한지를 갖고 돌아가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었다. 요사이 말로 중국과의 무역도 이 한지가 중심이 되었었다고 하니까 지금 중국의 중요 문서로 보관되어 오는 책자가 되짚어보면 우리 한지로 된 것인지도 모른다.

종이 소재 제품, 즉 한지로 된 제품에 대하여서는 1871년 한말의 문신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이 써 놓은 임하필기(林下筆記)에 잘 나타나 있다. 가령 "인조 임금은 겨울철이 되면 관북 지방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저고리 500 벌과 낙폭지(한지의 하나로 창호지처럼 짚긴 종이) 400장을 보내 옷을 지어 입게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동시에 변방을 지키는 병사들에게는 한지로 만든 지갑(紙甲) 옷을 입혔다고 한다. 철갑(鐵甲)옷은 무거울 뿐만 아니라 차가워서 겨울이면 더욱 춥기만 할 뿐이지만, 지갑으로 된 투구는 가볍고 따듯하며 물에 적셔놓으면 화살도 뚫지 못하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지갑 옷은 종이를 몇 겹 접어서 겹 종이를 만들게 되는데, 사슴가죽(鹿皮) 끈으로 엮어 만들고 검은 칠을 하였다. 이러한 투구를 만들려면 종이를 소금물에 너댓 번 담가 두었다가 만든다고 했다. 이러한 군사적인 목적 외에도 시집가는 신부의 가마에는 한지로 만든 요강을 넣어주는 것이 상식으로 알려져 있다. 종이로 된 요강은 사기로 된 것이나 놋쇠로 된 요강보다도 훨씬 가벼워 가마꾼의 노고를 도와주며 또한 운행 중에 용무를 보아도 소리가 나지 않는 장점도 있었다고 한다. 시집가는 색시는 보통 몇 시간을 가마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때로는 하루 종일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지혜도 나왔었을 것 같다.

좀 비싸서 그렇지 부자 집에서는 때로 한지로 만든 가벼운 함지박을 사용하던 기록도 있고 보면 한지는 옷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용품으로 널리 사용되기도 하던 귀중한 소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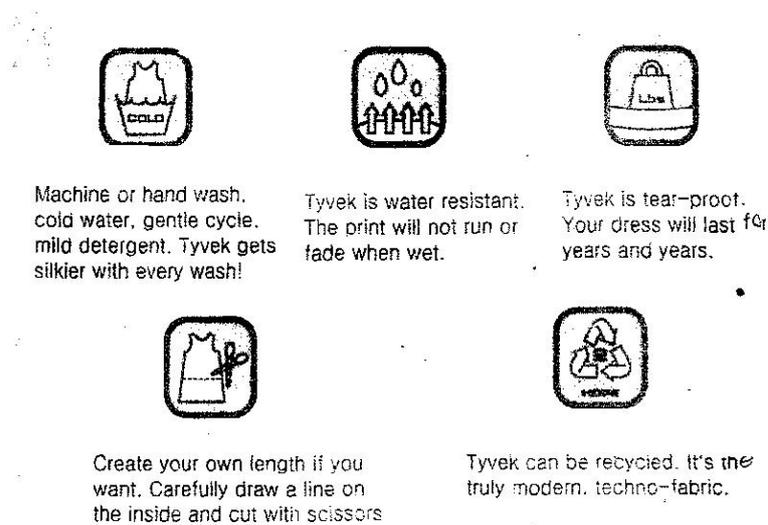
한겨울 외부의 기온이 영하 15도가 되는 추위 속의 한옥 내부 방의 온도를 15도 정도로 유지시키는 문이나 들창을 보면, 문창호지라는 한지 한 장의 보온성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종이 제품의 제조 모델을 보면, 구라보라는 면방회사는 경사를 면 번수 24수나 36수의 면사로 하고 위사를 한지 종이 실로 하여 데님 생산에 성공하였고, 재킷이나 원피스 같은 용도로 만들고 있다.

남성복 메이커인 다키사타 같은 회사는 면 번수 48수 단사 정도의 100% 종이 실 직물을 만들고 있으며, 같은 종이 실에다 소모 단사와 교직한 여름용 복지도 만들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실을 수입하여 paper dress 란 이름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림과 같은 취급주의 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종이 소재와 관련하여 꼭 소개하고 싶은 것은 야마사키 쇼우지(山崎昌二)라는 사람이 만든 종이 벨벳 직물이다. 고도의 기술이 동원된 양면 파일 벨벳 직물인데,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종이 실로 만든 것 같지 않다는 감탄이 나온다 했고, 뉴욕의 Modern Art 미술관에 영구 보존되고 있다. ♣ (공석봉)



Paper Dress(Tyvek)의 취급 주의사항